

전남도, 교통·감염병 분야 안전지수 최하위

국민안전처, 화재·자연재해·범죄 등 7개 평가

광주시 향상도 전국 1위 ... 동구 대부분 낙제점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측정 결과 광주는 향상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전남은 5등급 분야를 절반으로 줄여 상당 부분 개선됐다. <관련기사 12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주시 동구가 대다수 분야에서 낙제점인 5등급을 받았고, 전남은 전반적으로는 향상됐으나 여전히 각 평가분야에서 4, 5등급이 많았다. 분야별로는 자연재해나 화재, 안전사고는 나아진 반면 교통이나 감염병 등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8일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모두 7개 분야다.

등급은 5개로 ▲1등급 안전지수가 평가 대상 상위 10% 이내 ▲2등급 11~35% ▲3등급 36~65% ▲4등급 66~90% ▲5등급 최하위 10%에 해당된다. 광주시의 경우 4개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등급이 오르며 특·광역시 중 향상도 1위를 차지했다. 자연재해가 지난해 5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3계단 뛰어오른 것을 비롯해 화재 2→1등급, 범죄 5→4등급, 안전사고 4→3등급으로 향상됐다. 반면 교통과 감염병은 나란히 3등급에서 4등급으로 1단계씩 내려 앉았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세종이 1등급수가 3개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 중에서는 동구가 자연재해를 뺀 모든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 자연재해

는 지난해 5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급상승했지만,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은 죄다 낙제점이다. 5개 자치구 통틀어 1등급은 광산구 자살 분야가 유일하다. 전남도의 안전지수는 화재와 안전사고 분야가 지난해보다 상승했으나 교통과 감염병 분야는 여전히 최하위인 5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화재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안전사고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자연재해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각각 1~2등급 향상됐다. 하지만 교통과 감염병은 지난해와 같이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고, 자살 분야도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을 유지했다. 범죄 분야만 유일하게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강원, 제주와 함께 5등급이 2개 분야를 차지, 전국 9개 도 단위 중 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5등급이 단 1개도 없으며, 경기도는 화재, 교통,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는 나주시가 화재·교통·안전사고 분야에서 낙제점에 해당되는 5등급을 받아 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화재사망자 수가 100%(4.75명→0명) 감소해 화재 분야의 등급이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군 단위 중 5등급이 많은 곳은 영암(교통, 범죄), 함평(자살, 자연재해), 진도(자살, 자연재해), 담양(교통, 자연재해)으로 조사됐다. 무안은 안전사고와 화재에서 1등급을 받아 전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지수가 가장 높았다. 신안군은 범죄에서 1등급을 받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적십자사 '사랑의 선물주머니' 만들기 8일 오전 광주·전남적십자회원들이 광주시 북구 매곡동 지사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선물주머니'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국비 565억 투입

레이저박 부품·해양융복합·생물·항공우주 포함

전남도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 지역 3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 565억원 등을 투입한다. 중국 업체의 진입 등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어 이들 산업의 고급화, 첨단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7년 '레이저박 부품 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 구축사업'을 비롯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사

업', '에너지 절감형 특화선종 개발', '해양 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등 5건의 조선 기자재 사업 다각화를 위한 사업에 국고 105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에너지 절감형 특화선종 개발' 등의 사업비가 확보됨으로써 전남 조선업의 66%가 집적돼 있는 목포와 영암지역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의 구조조도와 및 사업다각화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미래 성장 이산화탄소 고부가 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비롯한 '해양 융·복합소재 연구기반 구축',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뿌리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5건의 사업에 141억원이 쓰인다. 전남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의 94.5%를 차지한 3대 주력산업인 조선, 석유화학, 철강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신산업에도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을 수립

했다. 대체산업인 생물의약품 우수항공, 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도 318억원(9건)에 이른다. 화산 백신산업특구에 필수적인 백신개발용 생산시설인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시설 구축' 사업비가 내년에 처음으로 확보됨에 따라 백신 R&D와 시제품 생산, 비임상·임상, 백신생산 등 백신산업 글로벌화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집적지로서의 위상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조류발전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진도의 '조류발전 실험 시범장', 'MW급 태양광발전실증단지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비도 신규 반영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 친환경 인증, 경지면적의 13.1% 차지

4년만에 반등 3만7356ha

전남의 친환경 인증 면적이 4년 만에 반등해 전체 경지면적의 1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 면적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유기농 면적을 집중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21일 현재 전남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은 유기농 6033ha, 무농약 3만1323ha 등 모두 3만7356ha로 전국(7만5362ha)의 49.6%를 차지한다. 농가 수로 보면 유기농 농가 수가 지난해 3241호에서 3713호로 증가한 반면 무농약 농가수는 2만2119호에서 2만1209호로 줄었다. 농가들이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로 쓸 수 있는 무농약 인증보다 화학 농약·비료를 쓰지 않고 친환경 비료만 쓰는 유기농 방식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점차 높은 단계의 친환경 재배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남 전체 경지면적 30만5000ha의 13.1%인 4만ha까지 면적을 넓히려던 목표도 거의 달성했다. 전남 친환경 인증은 유기농과 무농약을 합해 7만5000ha에 달했던 2012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다가 처음으로 745ha 증가했다. 전남의 면적 확대로 전국 면적도 468ha 늘었다. 전남을 빼면 전국 면적은 266ha 감소한 셈이다. 최근 친환경 농업은 일부 농가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부실 인증 등으로 3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 면적을 전체 경지의 15~2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과거 무농약 중심 구조에서 유기농 면적 중심 구조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의 무농약 면적은 전국의 55.4%를 차지하지만, 유기농 면적은 32.1%에 그친다. 유기농 면적만을 전체 친환경 인증 면적과 비교하면 16.1%에 불과하다. 친환경 재배에 따른 농가 수익 분석이 나 판로가 부족한 점 등은 과제로 남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담양 대숲맑은쌀 '대한민국 명품쌀' 대상

함평 나비쌀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16년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 평가'에서 담양 대숲맑은쌀이 대상을, 함평 나비쌀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명품쌀은 전국 시·도에서 추천한 16개(시·도별 2개) 브랜드 쌀과 농협RPC, 대형 유통업체에서 추천한 14개 등 30개 브랜드 쌀을 평가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쌀 품질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쌀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 기존의 선정 방식을 변경해 올해 처음으로 명품쌀을 선정하게 됐다. 전남도는 과거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서도 13년 연속 최다 선정됐다. 전남도는 올해 폭염, 가뭄, 태풍, 수발아 등 여건이 어려웠지만,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 평가에 대비해 추천된 3개 지역(고흥, 담양, 함평)과 수차례 간담회 및 현장지도 등 명품쌀 생산과 유통관리에 매진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전중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대한민국 명품쌀을 중심으로 전남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통해 소비편면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수도권 지역 친환경 쌀 학교급식 납품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 권은희 의원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사진)을 최근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광주시당은 김동철 시당위원장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권은희 직무대행 체제로 꾸려졌다. 권 위원장은 차기 광주시당 당원대표 자대회까지 국민의당 광주시당을 이끈다. 권 위원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한다"는 광주시민과 당원들의 촛불민심을 엄중히 받들어 최순실 게이트에서 촉발된 촛불혁명이 헛되지 않도록

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위원장은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2012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초특가 실속규슈여행!** 499,000원
(단 3회! 12/19, 12/22, 12/25)

★**고품질 북큐슈여행!** 699,000원
(단 3회! 12/19, 12/25, 12/28)

규슈 출발일 :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548,000~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838,000~

오사카 출발일 :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16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오사카 설연휴 :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38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949,000~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팀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편 699,000~

[풍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편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편 899,000~

[풍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편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별제품★

한별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여 ▶상기 요건을 한을 및 항공요로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회사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예약비(항공료, 숙박, 식음료,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 여권, 여행보증보험, 가입(해외여행 1억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